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⑦ 불조지심체요절(직지)



이종훈
포천시 학생
경기도교육청 명예심사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프랑스에 단 한권만 보관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之心體要節)은 고려의 승려인 백운화상이 역대의 여러 부처와 조사(祖師)의 계승(傳頌), 법어(法語) 등에서 선(禪)의 요제(要諦)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저술한 책이다. 직지는 백운화상이 사망한 지 3년 뒤인 1377년, 그의 제자들이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고려시대는 불교국가라 할 만큼 불교가 성행하였다. 국가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찰을 건립했고, 토지를 지급하였다. 또한, 승려에게는 면역(免役)의 특권을 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들어 출가해 승려의 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왕실·귀족 출신으로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고려불교의 귀족성에서 나온 현상이었다. 이처럼 귀족적이었던 불교는 무신란 이후 변화를 보이게 된다. 선종은 왕실·귀족과 밀착된 권위주의적인 교풍에 대한 무신란의 생리와도 상통되는 것이었다. 선종은 경전에 의한 복잡한 이론적 접근을 배격하고 참선을 통한 불교 신앙을 그 중심내용으로 삼았기 때

문에 소박한 무인들에게 친근감을 주었다.

현재 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책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직지)은 1377년 흥덕사(興德寺)라는 사찰에서 인쇄된 것이다. '직지심체'의 내용은 '참선 하여 사람의 마음을 직시하면, 그 심상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 학문승(學問僧)들의 대표적인 학습서이다.

이 책은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는데, 신라의 목판인쇄술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던 고려시대에 금속활자가 발명된 것은 13세기 초였던 것으로 보인다. 13세기의 여러 기록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관청이 아닌 지방의 한 사찰에서 전통적인 밀랍주조법으로 주조하여 찍어낸 것이다. 이 때문에 활자의 크기와 글자모양이 고르지 않고, 인쇄상태가 조잡한 편이다. 이와 같이 기술이 미숙한 단계의 사주본(寺鑄本)이지만, 문헌에만 전제되고 있던 여러 종의 고려 주조된 중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금속활자본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귀족문물 화유산이 되는 데에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이 책의 하권 간행기(刊行記)에는 고려 왕명(禑王) 3년(1377)에 정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하였음을 명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

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성경책보다 70년 이상이나 앞선 것이다. 한편 이 책을 인쇄한 흥덕사(興德寺)는 충북 청주시에 그 터가 남아있는데, 청주 고인쇄박물관(古印刷博物館)이 개관되어 있다.

이 책이 해외로 유출된 것은 대한제국시기 주한 불란서대리공사 서울에서 근무한바 있는 콜린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에 의해서였다. 이 책은 원래 상·하 2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하권만이 남아있다. 하권은 3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장은 없고 2장부터 39장까지 총 38장만이 보존되고 있다. 프랑스인 쿠랑트(Courant, M.)가 1891년에 출간한 『한국서지 Bibliographie Coreenne』의 부록에 일찍이 소개되었으나 책의 행방이 묘연하였다. 이후 197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도서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도서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되었다.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불조지심체요절'의 등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조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쇄문화의 진과와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친 기록유산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현재 프랑스에 단 한 권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희귀성 또한 크게 고려되었다. 아울러 불



금속활자 제조



직지심체요절



흥덕사 인쇄박물관

조지심체요절과 구텐베르크 성서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서양의 금속활자본으로 인류의 기록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꾼 최대의 유산이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햄릿형의 허무주의는 극복이 가능한가



박정근
대전대학교
인문학과 교수

요새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매우 난장판으로 점철되고 있다.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독재와 구태타로 어려울 때나 나름대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여야가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공방을 하는 모습을 견지해왔다. 양당 제도로 정착되어 노선이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희생물이 되어 정치적 신념보다 왜곡된 흐름에 편승하는 기회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양 김씨는 독재에 투항하는 정치적 동지이면서 또 정권교체라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역적 연고의 지지세력에 의해서 나뉘어 적대세력이 되고 말았다.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호남인에게 배신감을 심어주었고, 그가

“
햄릿은 클라우드우스에 대한 부친살해의 의심을 가졌기에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그의 번드레한 정치적 수사 뒤에 숨어있는 음침한 죄의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다. 그의 앞에서 부왕살해의 장면과 똑같은 '곤자고의 살인'이라는 연극을 하게 하여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핀다. 클라우드우스는 이 검증의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의식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견디다 못해 공연을 멈추게 하고 뛰쳐나가 버린다. 연극적으로는 이런 검증의 수법을 '쥬뎃'이라고 부른다.

“
주장하던 탈지역주의에 실패하고 말았다. 요즈음 범여권의 후보로 부상하던 고건 전 총리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의 경우도 정치권의 혼돈을 견디지 못하고 대선후보를 포기함으로써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하게 한다. 그야말로 한국정치의 허무주의가 너무 팽배하여 진보적 개혁세력이 현저히 쇠퇴하고 오히려 박정희 전대통령의 산업세력을 대안으로 하려고 하는 역사적 퇴보가 보이는 것도 한국정치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경선투를 두고 공방을 하던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사이의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익스피어는 『햄릿』에서 부왕이 동생 클라우드우스에게 시해된 후 복수를 부탁하는 유령에게 맹세를 한 햄릿이 삼한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허무주의란 사람들이 절대가치라고 믿

고 있던 종교·철학·도덕 등의 기준가치가 혼돈에 빠질 때 발생하는 무기력증이다. 동생이 형을 정치적 목적으로 살해한다든지, 아내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시동생과 성관계를 가져 배반하는 부도덕한 일이 벌어진 덴마크는 이미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절대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이 혼란의 중심에 서있는 햄릿은 극심한 허무주의에 시달린다. 그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구나. 이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견디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물러드는 환난에 대항하여 이를 견디는 것이 장한 일인가?" 죽는다는 것은--잠자는 것, 그 뿐이다. 잠들어서 고뇌와 육신이 물러받은 온갖 타고난 고통을 끝장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만사의 궁극적 해결책이다"이라고 독백을 통해 삶을 벗어 던지고 죽음으로 향하고자 하는 내심을 토로한다. 절대가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삶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당시의 왕이던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절대적 존재로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부왕의 살해법으로 지목된 작은 아버지 클라우디우스를 더 이상 따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의 죄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획득하지 못한 이상 감히 복수를 결행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절대가치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무능력을 느끼고 있는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혼돈의 처분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햄릿이 처한 혼돈과 유사하다. 어느 후보에게도 믿음만한 신뢰를 주기 어렵다. 그들의 일부가 산업화나 민주화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은 그들을 진정한 리더로서 존경을 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당의 주자들은 소위 도로리 키 재기식의 왜소감에 시달리며, 야당 후보들 또한 산업화의 주역들의 조역으로서 결코 큰 점수를 주지 못하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을 상징하는 차떼기당을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해낸다는 점수만으로 국가의 리더로 존경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독재정권과 손을 잡고 온갖 특혜를 누리 재벌을 위해 일익을 담당했다고 그를 칭송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들이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을 우리 앞에 리더로서 세우기 전에 철저한 검증은 거쳐야 한다.

햄릿은 클라우드우스에 대한 부친살해의 의심을 가졌기에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그의 번드레한 정치적 수사 뒤에 숨어있는 음침한 죄의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이다. 그의 앞에서 부왕살해의 장면과 똑같은 '곤자고의 살인'이라는 연극을 하게 하여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핀다. 클라우드우스는 이 검증의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의식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견디다 못해 공연을 멈추게 하고 뛰쳐나가 버린다. 연극적으로는 이런 검증의 수법을 '쥬뎃'이라고 부른다.

자, 진정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쥬뎃의 검증은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성공하는 자를 국민들은 서슴치 않고 지도자로서 선택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가 지역감정이나 독재, 부정 부패, 부정한 축재를 하지 않았는지 쥬뎃에 집어넣고 철저히 조사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언론들의 괜한 여론조사나 언론조작의 허수는 아직 설익은 감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세이 38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5년 본교 33개 학급 가운데 3학년 교실의 학급 실훈(室訓)으로 잠을 자는 자(者) 꿈을 꾸고, 책을 읽는 자(者) 꿈을 이룬다"는 글을 대하고 새삼스레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음 속으로 느끼는 바가 많아 본교 학생들을 위한 훈화시에 두서너 차례 독서교육의 필요성 및 생활화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는 글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아! 계절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달이며, 아울러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잠을 자는 대신에 책을 읽는 사람은 훗날 반드시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책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요, 영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경험 세계를 확대시켜 주며, 또한 우리 삶의 질(質)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한 두 번쯤은 눈 여겨 읽어보았을 것이라 생각되는 말씀 중에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인용한 글을 요약하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저는 이미 본란을 통해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이라는 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에게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짧은 시절이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고, 가장 귀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며, 가장 달콤한 시간은 노력 끝에 성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오래 전에 꿈꾸어온 미래일 수 있습니다.

시인 톨스토이는 "모든 인간은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고,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고, 시간의 귀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하겠습니. 학생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듯이, 시간관리의 진정한 목적은 시간을 남기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의 양을 늘림으로써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현명한 시간 사용법인 것입니다. 시간의 풍요는 휴식의 풍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생 여러분!
나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삶을 개선시키려는 뜨거운 열망이 성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강렬한 욕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진로 개척은 부단한 노력과 확고한 신념,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思考)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예의범절과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부모님과 못 어른을 공경하면서 친구들과도 기분 예절을 갖출 것이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성공에



지정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곳곳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신의 주위 환경을 되돌아보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격을 갖춘 사람, 스스로에게 긍지를 갖고 있는 멋진 사람,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날그날이 일년 중에서 최선의 날입니다. 오늘 할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의 보나 나는 진보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리는 자가 거둔다'는 광범한 말로써 이 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즉,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날의 피야말로 그들리며 가을이 풍성한 가을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자연은 때에 맞추어 심고 가꾼 자에게만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줍니다. 짧은 날, 인생의 봄을 맞이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또 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체계적으로 알차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둘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07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수강생 모집안내

(포천문화원 어린이 한자·서예교실 강사 양성과정)

고령화에 대비해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실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국무총리복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가 후원하여 포천문화원이 주관 실시하는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어린이한자·서예교실 강사 양성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최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어린이 한자교실에 한자지식과 강의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강사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한자 및 서예를 가르치게 함으로서 노인세대와 어린 세대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노년세대 은퇴 후 시간을 지역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후배양성에 힘쓰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 해주고자함.

모집요강

1. 모집기간 : 2007. 5. 21 ~ 5. 31
2.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3. 모집대상 : 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교육계 경력자, 한자, 서예 또는 일반 강의 경험자나
한자 및 서예 다 습득자 등 우선 선발

4. 사업내용

- 가. 교육기간 : 2007. 6월 ~ 8월(3개월간)
매주 1회(화요일, 14:00 - 16:00)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교육내용 : 한자 및 서예의 기초와 어린이 한자, 서예 강사로서의 소양 및 강의법 등
- 다. 수강료 : 무료(간식지원)
- 라. 기타사항 : 수료 후 포천문화원 한자 및 서예 강사로 위촉 강사 활동 지원
- 각급학교 방과 후 학습 강사 및 주민자치센터 한자, 서예 강사 의뢰

5. 신청절차

- 가.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다. 접수처 : 우)487-803 포천시 신읍동 33-45 포천문화원
▷ 홈페이지 : http://www.pcmh.or.kr
▷ e-mail : kgpc1986@yahoo.co.kr, fax : 031)536-1020
▷ 전화 : 031)532-5015, 532-5055